

80대 할머니 못 말리는 열정... '십리 걸어 한글공부'

지난 해 십리 떨어진 한글 교실 출석 '개근'

장성군이 운영하는 성인 문해 교육 '마을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에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는 십리 길도 마다하지 않고 꼬박꼬박 출석하는 어르신이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문해교육은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읽기·쓰기·셈하기·문자해독 능력 등을 일컫는다. 1일 장성군에 따르면 십리 길 한글교실 개근 출석 만학도는 장성 삼서면 외동마을에 거주하는 나이순(81·여) 할머니다.

글 공부를 위해 매주 두 번씩 동화면 송계경로당 한글교실에 출석했다. 집에서 경로당까지는 십리 넘게 떨어져 있지만 물리적인 거리는 어르신 의지를 꺾을 수 없었다. 주위의 걱정과 만류에도 나 할머니는 "평생 모르던 글자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더니, 이젠 텔레비전 자막 글씨도 읽는다"며 "공부가 이렇게 즐거운데 십리 길에 대수겠나"고 답할 정도로 만학의 즐거움에 푹 빠져 있다.



외동마을 나이순(81) 할머니.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부터 참석이 어렵게 됐다. 지난해 겨울 미

뤄졌던 인공관절 무릎 수술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십리 길 출석'은 불가능하게 됐다.

이 같은 딱한 사정을 전해 들은 장성군은 나 할머니처럼 배움의 의지는 있지만 학습 장소가 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을 위해 세심한 배려를 했다.

문해강사가 직접 자택을 방문해 배움을 전하는 '가정'으로 찾아가는 한글교실'을 새로 열었다.

이러한 배려로 수업을 받지 못해 낙담했던 나 할머니는 다시 미소를 되찾은 것으로 전해진다.

/장성=심재식 기자

포토뉴스



NH협은행 광주본부 '광주교육사랑카드' 5억원대 기금 전달

광주시교육청이 1일 NH협은행으로부터 '광주교육사랑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적립금 5억2906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번 전달된 적립금은 시교육청 예산에 포함돼 앞으로 광주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조선주 기자



학교법인 청송학원 김용만 이사장 '정원 장학금' 3200만 원 지급

학교법인 청송학원 김용만 이사장이 지난 29일 정원장학복지재단을 통해 송덕고등학교 재학생 32명에게 1학기 정원 장학금 총 3200만 원을 지급했다. 1일 송덕고에 따르면 정원 장학금은 송덕고 1학년 10명, 2학년 11명, 3학년 11명 총 32명에게 개인당 100만 원씩 전달됐다. /조선주 기자



영암군-산청군, 2년 연속 고향사랑 상호기부

영암군이 지난달 28일 영암읍인문화축제장에서 자매결연도시인 경남 산청군과 2년 연속 고향사랑 상호기부를 실시했다. 지난해에 이어 이번 상호기부에서 두 지역은 각각 250명이 참여해 2500만원을 주고받기로 약속하며 상생발전에 나서기로 했다. /영암=김형두 기자



(주)세아제강·(주)이룸바이오, 순천시에 물품·성금 기탁

순천시는 (주)세아제강 순천공장에서 쿠키 200세트(1300만원 상당)를 (주)이룸바이오에서 이동통신기 성금 100만원을 기부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후원한 물품은 세아제강 순천공장 직원들이 장애인 표준사업장(브라보버버) 포인트로 구매해 기부한 것으로 SOS어린이마을, 성신원 등 이동복지시설에 전달됐다. /순천=조준익 기자

광주역사민속박물관, 박물관대학 강좌 운영...선착순 신청

18일~6월 13일 '광주, 한국사의 새벽을 열다' 주제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오는 18일부터 6월 13일까지 '제29기 박물관대학 강좌'를 운영한다. 이번 강좌는 역사와 문화에 관심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역사민속박물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올해 박물관대학은 한국사의 새벽이었던 광주역사의 진정한 힘을 알리기 위해 '광주, 한국사의 새벽을 열다'를 주제로 진행한다. 특히 기존 강의 중심 강좌에서 탈피해 강사와 청중 간 소통형 강화를 위해 플로키움 강의를 도입했다. 강좌는 강의 7회, 현지답사 1회로 구성했다. 먼저 김대중 탄신 100주

년을 맞아 김대중이 지역에 남긴 정신적 유산을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한 기획전시 '김대중, 다시 광야에서' (4월 18일~8월 18일)와 연계해 '김대중이 남긴 유산과 고민', '5·18 왜곡과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주제로 강화를 연다. 또 역사의 변곡점마다 주요 역할을 해 온 광주 역사에 대해 '광주의 역사적 뿌리, 마한', '후백제 첫 도읍지, 광주'를 시작으로 '광주에서 항일독립운동과 기독교'까지 통시대적으로 살펴본다. 강의와 연계해 전북 전주 일대 후백제 문화유산을 답사(참가비 별도)하는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강좌는 무료, 신청은 1일부터 광주 시 누리집 바로예약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100명이다. /김도기 기자

맨손으로 흥기 난동범 제압 조갑현 씨 '포스코히어로즈' 선정



제압한 조갑현 씨를 포스코히어로즈로 선정하고 포스코센터에서 상패와 자녀 장학금을 전달했다.

지난 3월 8일 오후 1시경,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한 시민이 귀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면서 한 과일 가게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던 조갑현 씨는 부상을 당한 시민 뒤로 달려가 피해시민을 신속히 대피시켰다.

조 씨는 발차기로 A 씨를 제압 후, 신고를 받고 도착한 지구대 경찰들에 의해 연행됐다.

동광양중, 재능기부 봉사단 '뽕보드레' 따뜻한 행보

동광양중학교 재능기부 봉사단 '뽕보드레'는 3월 30일 직접 쿠키 반죽을 만들고 구운 수제 쿠키를 관계성 맺은 아로마요양원에 기부해 요양원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올해는 지역 아동 센터 아동들을 초청해 제과제빵 체험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자원봉사센터에서 주관한 블루재능봉사단으로 지역 내 성인단체와 협력해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기로 했다.

/광양=조준익 기자

서구, 펜싱교실 확대 운영 "국가대표에게 배워요"

오는 13일 꿈나무 펜싱교실 시작...11월까지 운영



서구가 국가대표로 활약하고 있는 서구청 펜싱선수단과 함께하는 펜싱교실을 개강한다. 서구는 지난해 초등학생 550여 명

을 대상으로 펜싱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올해 꿈나무반, 자녀와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반, 펜린 이반(성인반)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

상으로 펜싱교실을 확대 운영한다. 펜싱교실은 국가대표 강영미, 이정환, 김재원 선수를 비롯한 서구청 소속 선수단의 재능기부로 오는 11월까지 연중체육관 국민생활관 3층 펜싱훈련장에서 운영된다. 특히 선수단 지도하에 기본 동작과 자세를 배우고 실제 센서가 부착된 펜싱복과 펜싱칼을 사용해 대련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모집은 수업 시작 2주 전부터 ▲꿈나무반 (4월, 6월) 각 20명 ▲가족반 (7월, 11월)과 15가족 내의 ▲성인반 (5월~7월) 20명을 선착순 모집 및 운영할 예정이며, 서구청 누리집 및 SNS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서구청 통합예약시스템으로 예약신청이 가능하다. /조선주 기자

순천시립삼산도서관, 13일 류선희 시민 작가 북토크 개최

순천시는 제60회 도서관 주간을 맞아 오는 13일 오전 10시 삼산도서관에서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아이 마음돌봄'이라는 주제로 '시민 작가와의 만남' 북토크를 개최한다. '시민작가와의 만남'은 순천 지역 출신이나 거주 중인 시민작가를 초청해 작가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북토크로, 우리 지역 작가를 발굴하기 위해 2021년부터 삼산도서관에서 꾸준히 운영해 왔다. 이번엔 만날 류선희 시민 작가는 현재 초등 교사이자,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을 다룬 심리학 책 '교실의 탄생' 저자이다. 강의를 통해 아이들이 학교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으로, 초등 5학년부터 성인까지 들을 수 있다. 이번 순천시립 작가와의 만남은 순천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장흥 안양농협 스마트폰·AI 보안교육 카카오톡·문자보내기 등 호응...노령층 디지털 역량 강화



장흥 안양농협은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속에서, 노령인구층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데 한 발짝 나아가는 노력이 이뤄졌다. 지난달 18일부터 21일까지 안양농협에서 직접 시행한 스마트폰 및 인공지능보안교육 프로그램은 많은 참가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스마트폰교육에서는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보내기, 사진 및 동영상 촬영과 공유에 대한 내용을 배웠으며, 피싱예방 및 보안교육에서는 보이스 피싱과 같은 사기전화를 예방하는 방법과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사이

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교육이 시행됐다. 더불어, 인공지능번역 기술을 활용한 번역 교육도 진행돼 참가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했다. 김영중 조합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조합원들이 스마트폰과 가까워진 것 같다. 참가자들로부터 '다음에도 꼭 참여하겠다'는 많은 응원과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다. 우리는 이를 통해 더 많은 노령 인구가 디지털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장흥=임민기 기자

"우리의 실천으로 기후 위기 늦춰요"

신천지지원봉사단 광주지부, 지구살리는 WE GO 캠페인

지난달 23일, 기후위기가 생활 속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 방법을 알려주는 행사가 광주 수완호수공원에서 개최됐다.

이날 펼쳐진 'WE GO' 환경 캠페인은 세계 물의 날(22일)과 세계 기상의 날(23일)을 맞아 물의 소중함과 기후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의 심각성을 알리고, 생활 속 탄소중립의 실천방법을 시민들에게 알리며 소통하는 자리로 만들어졌다.

이번 행사는 신천지지원봉사단 광주지부, 지구환경보전중앙연맹, 지체장애인협회 광산지부 등 지구 위기 대응을 실천하고자 뜻을 모은 단체들이 함께 사진전을 통해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사례를 알리고, 생활 속에서 지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을 홍보했다. 특히 세계적으로도 이상기후로 안정적인 물 관리에 여러 나라가 어려

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광주와 전남 지역 역시 5~7년 주기로 발생하던 가뭄이 2010년대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다. 광주의 수원지인 동북댐은 지난해 14년 만에 저수율 19%를 기록했다.

이에 행사 봉사자들은 광주·전남 수원지 곳곳이 이상기후로 메말라 가뭄 경보 단계인 '경계' 수준까지 이르렀던 지난해를 기억하며, 평소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절수 운동과 물의 중요성, 탄소중립 실천방법을 체험을 통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물 절약과 관련해서는 ▲수도밸브 수압저감을 통해 20~40% ▲샤워시간 절반 줄이기 50% ▲빨랫감 한 번에 세탁하기 30% ▲양변기 수조 필밸브 조절 또는 물병 넣기 20% ▲양치컵 사용하기 70% ▲설거지통 사용하기 60% 절감 등의 방법들을 소개했다. /심연희 기자



또 체험부스로 탄소중립 설치지바, 계피 천연살충제, 커피박 방향제, 물사랑 안심 표백제, 나만의 손수건 만들기 등을 운영했다. 이날 캠페인에서 사진전을 관람한 한 시민 임모(18·신창동) 양은 "나는 팬찮지만 하는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서 사진처럼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환경을 위한 행동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연희 기자